

종합

불멸의 금자탑 세운 타이거즈, 이젠 아시아 최고구단 돼라

KIA타이거즈 V10

호남을 대표하는 KIA 타이거즈가 마침내 12년 묵은 한(恨)을 풀고 전통의 명가를 재건했다. 지난 1997년 모그룹의 부도로 몰락의 길을 걷던 타이거즈를 인수해 재기의 꿈을 키워오던 KIA가 드디어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의 금자탑을 세우고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쓰면서 '제2의 전성기' 토대를 마련했다.

그간 변변치 못한 성적을 아쉬워했던 KIA 팬들은 이번 우승으로 KIA가 과거의 실용을 털고 한국 프로야구의 확고한 정상을 다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 최고 구단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팬들은 이번 우승으로 KIA가 전력 강화를 통해 상위권 유지와 함께 팬서비스 향상을 통해 '이기는 KIA, 신나는 KIA, 희망을 주는 KIA'가 돼 호남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KIA는 1980~1990년대를 거치며 국내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1997년 우승 이후 침체의 늪에 빠져 다시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2001년 시즌 중반 KIA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구명 난 전력을 보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해태는 심각한 자금난 속에 간판스타인 선동열과 이종범을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로 트레이드하는 등 전력

균열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명가재건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우선 이종범과 삼성에서 뛰던 이강철 등 '프랜차이즈 스타'를 데려와 타이거즈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광주일고 출신 메이저리거인 최희섭과 서재응을 각각 최대 15억5천만 원, 15억 원에 영입했다. 이처럼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좀처럼 과거의 영예를 되찾지는 못했다. 큰 돈을 주고 마해영, 진필중, 박재홍 등 스타를

데려왔지만 좀처럼 옛 영화를 재현하지 못했다. 꾸준한 노력에도 한국시리즈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2002~2003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게 포스트시즌 성적의 전부였다. 2002년 LG에 2승3패, 2003년 SK에 3패로 무릎을 꿇었다. KIA는 지난해 감독과 단장을 교체하면서 도약을 노렸다. 하지만, 이전처럼 과욕은 부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루고 실력을 쌓았다. 조병현 감독은 부임 첫해 6위에 그쳤지만 올해 마운드 운용 등에서 서투르지 않았다. 기본기와 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하며 꺾박 꺾박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왔고 그 결과 마운드는 시즌 후반 강한 힘을 냈다. 조 감독과 비슷한 시기에 KIA에 온 김조

호 단장은 구단 운영의 중요한 방향만 제시할 뿐 선수단에 일질 간섭하지 않았다. 다만, 성적 등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겠다며 코칭스태프의 권한을 보장해 줬다. 벤치와 프런트가 조화를 이루자 지난 수년간 KIA가 투자한 밀거름이 올해 열매를 발취했다. 선수단의 플레이에도 KIA 특유의 끈근하고 강한 정신력이 묻어나면서 우승까지 차지했다. 이제 팬들은 새롭게 변한 KIA를 기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이번 우승은 정상 정복의 완성이 아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 명문구단이 돼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시발점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장흥에 한·러 합작 '해양실험센터'

무인 로봇 등 첨단 해양장비 개발

장흥에 각종 최첨단 해양장비를 개발, 실험하는 '해양응용실험센터'가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과 해양기술(MT)이 뛰어난 러시아가 손을 잡고 무인 로봇, 수중 오토바이 등의 최첨단 해양장비를 개발하게 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장흥군,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22일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에 해양응용실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의 극동 시베리아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및 지난 3월 '전남도-광주과학기술원-러시아 해양연구

소'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광주과학기술원은 러시아의 해양기술(MT)과 우리의 정보기술(IT)을 융합해 해양응용실험센터를 구축하고 MT-IT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해양응용실험센터의 공간 제공 및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전남도

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이 산업화할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기술이전 기업이 해양실험센터 인근에 있는 회진 임해산업단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최첨단 해양장비 연구를 총괄하는 한·러 MT-IT 융합기술연구센터는 오는 2015년까지 양국으로부터 106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 장성군 나노생물실험센터에 실험실을 갖추고 2011년 영암군 대불산단에 공장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23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막된 2009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유치원생들이 누에생태전시관의 다양한 누에들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그린(Green)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7일까지 계속된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holding a sign that says '광' (Light) and '망' (Failure/End). The tex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light in various contexts, from science to art.

Advertisement for '신종플루, 거점병원 가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New Flu, Even at Specialty Hospitals, You Can Get Health Insurance Benefits).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patients with the H1N1 virus, including coverage for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Advertisement for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성공예감' (Success Expectations for the 2009 Korea Agriculture Fair). It highlights the fair's focus on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farmers, processors, and consumers.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14면' (Hiking Guide 14 pages) from the Kwangju Daily.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hiking routes and guides in the region.

Advertisement for '분할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Notice of Partial Merger and Share Submission). It provides details about the merger of companies and the submission of shares.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판매(주)' (Hanil Map Sales Co., Ltd.). It promotes the sale of Korean and Japanese maps, highlighting their quality and variety.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판매(주)' (Hanil Map Sales Co., Ltd.) featuring a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2010 Latest Gwangju City Address Book for Sale). It lists various types of address books available for purchase.

Advertisement fo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Kwangju Daily Ad Reception Guide).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advertising rates and services offered by the newspaper.

Advertisement for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Notice of Merger and Share Submission). It provides details about the merger of companies and the submission of shares.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판매(주)' (Hanil Map Sales Co., Ltd.) featuring a '목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 판매했습니다.' (Mokpo, Mu-an, Yeong-amp, Shin-an 4 regions are divided into 1 volume management area and sold). It promotes the sale of new address books for these regions.

Large advertisement for '직원채용공고' (Employee Recruitment Notice) from the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Jeollanam-do Bio-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It lists various job openings and the qualifications required for each position.